

복지회관 연내 착공

학생회관내 공간부족문제 해소에 필수적
정경대 강의실 확보 위한 증축도 재개방침

학생회관 동아리들의 공간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구해소를 위한 집회를 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학생회관에서 학생회관내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회를 갖고 △복지회관 착공 및 완공 예정일을 확실히 약속해 줄 것 △7층 공간보수를 4월21일까지 마쳐 줄 것 △5층·7층 화장실을 동아리방으로 개조해 줄 것 △학생회관 수위실 확장 날짜를 약속해 줄 것 △영화연구회, 서도화, 고전기타반, 음악감상반의 출입문을 철문으로 교체해 줄 것 △복지회관 건립시까지 본관 대회의실을 동아리인들이 필요할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본관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올해 안에 복지회관 공사를 시작하여 90년 등록금 합의사항에 근거해 92년 1학기까지 완공하기로 했고 기금 마련은 학교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이후 계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측은 7층 공간보수에 대해선 기존 4개 동아리방에서 복도공간을 활용, 3개를 30일까지 더 만들기도 했으며 학생회관 수위실 확장도 오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또한 동아리 출입문 교체에 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5층과 7층 화장실을 동아리방으로 개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

를 들어 거절했다.

본관 대회의실 사용에 대하여 학교측은 중요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리대와 정경대 강의실·자치회실 등 공간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문리대는 4층 증축을 학교측에 제기하기로 했고, 정경대는 곧 증축공사가 재개 될 예정이다.

문리대 학생회는 지난 4월 5일 401강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4층 증축 문제를 특별안건으로 상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다시 11일 오후6시 임시운

영위를 통해 투쟁 일정과 목표를 논의했다.

또한 문리대 학생회는 공간·복지문제등 교육환경전반에 대한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포, 이를 기초로 15일 학교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정경대 6층 증축이 경희의료원 한방병원문제로 지연됐었으나 곧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정경대 학생수는 2천8백여명인데 비해 강의실은 18개뿐으로 지난해 봄 증축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벌어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의 사용목적

받은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증축이 중단돼 있었다. 이는 본교 행정상 체계가 한계단에서 대학과 병원이 있어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쪽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희의료원 문제가 벌금 3천만원과 내고 해결돼자 정경대 증축공사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체육부와 동아리 모임
품물패 적극 지원키로

체육부와 동아리회장 및 대표자 모임이 지난 9일 체육과학대학 학생회실에서 있었다.

30개의 동아리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모임은 체육활동과 동아리 1학기 사업보고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으며, 체대생의 1인1실기 개발을 위해 체과대내의 체육부와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를위해 매월말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이 활발한 동아리의 경우 지원을 늘려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체대인의 자기개발을 위해 품물패, 노래패 등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취업난 불구, 전년보다 상승

취업률 72.4%, 순수취업은 50%

본교 졸업자중 취업한 인원이 지난 2월28일 현재 총3천6백5명 중 2천6백10명으로 취업률 72.4%를 보였다.

이를 캠퍼스별로 보면 서울캠퍼스가 졸업생 총 2천1백24명 중 1천5백68명이 취업해 73.8%를 수원캠퍼스는 졸업생 총 1천5백81명 중 1천42명으로 65.9%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또한 순수취업률은 서울캠퍼스가 53.1%, 수원캠퍼스가 47.7%를 보여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작년대 2~3%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각단대별 취업자수와 취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문리대=졸업자 총 4백55명 중 2백99명 취업, 65.7% ▲법대=1백9명 중 82명 취업, 75.2% ▲정경대=4백55명 중 3백68명 취업, 80.8% ▲사범대=1백17명 중 90명 취업, 76.9% ▲가정대=1백11명 중 68명 취업, 61.3% ▲의대=1백70명 중 1백67명 취업, 98.2%

▲한의대=1백18명 중 1백18명 취업, 1백% ▲치대=88명 중 88명 취업, 1백% ▲약대=41명 중 37명 취업, 90.2% ▲음대=1백39명 중 56명 취업, 40.3% ▲체대=1백55명 중 70명 취업, 45.1% ▲이부대=1백66명 중 1백25명 취업, 75.3%

〈수원캠퍼스〉
▲의대=3백9명 중 1백80명 취업, 58.3%, 58.3% ▲사대=3백10명 중 2백7명 취업, 66.8% ▲자대=2백17명 중 1백31명 취업, 60.4% ▲공대=5백98명 중 5백4명 취업, 84.3% ▲산업대=2백14명 중 98명 취업, 45.8% ▲체과대=2백13명 중 1백30명 취업, 61.0%

한편 여학생의 취업률은 서울캠퍼스졸업자 중 6백87명 중 4백14명이 취업해 60.7%를 나타냈다.

故 이수병동문 추모제

‘국학혁명사 이수병 선생 제 16주기 추모제’가 지난 9일 본교 수원캠퍼스공과대학관 앞 통일광

장에서 총민주 동문회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서울과 수원 약 1천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추모제는 각계 인사들이 추모사와 문익환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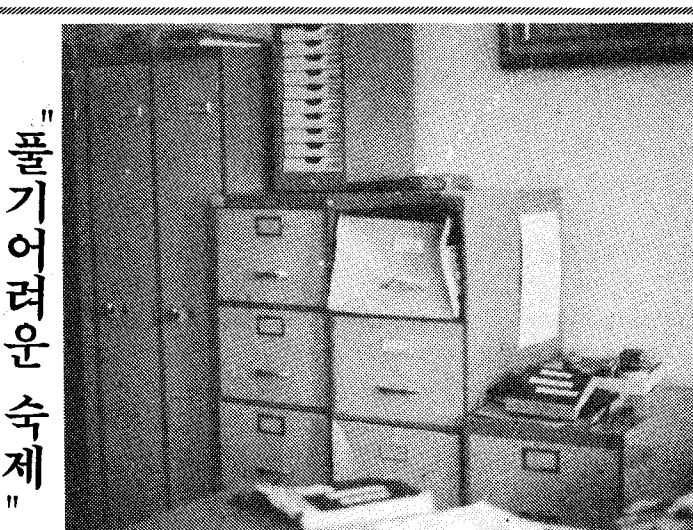
다. (관련기사10면)

전대협총회 11,12일 연대서 개최
의장 김종식군 선출, 총노선채택 결의

제5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의장에 김종식 한양대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첫날 사수대 발족식 및 개막 축하한마당을 시작으로 11일 전대협 강령 발표, 전대협 규약 개정 및 총노선 채택과 결의문 낭독등이 있었으며 12일에는 전대협의장 선출과 대변인에 허동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인준했다.

학생들의 접수가 있던 다음날 수원캠퍼스 교무처 서류들은 없어지고 캐비닛은 쪼그라지고 말았다. 부처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을까? 그 모순은 어디서 기인했으며 어떻게 풀어야 할 매듭일런지... (오은희 기자)

양캠퍼스 총학, 4·19주간 선포
영화상영, 기념마라톤등 다양한 행사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를 4·19주간으로 선포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4·19관련과 현재에 대한 분위기의 자료를 관내까지 배포할 예정이며 15, 16일 3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상영한다.

또한 18일에는 동부지구총학생회연합의 수위리 요점참배에 참가할 예정이며 다음날인 19일에는 4·19기념 집회 및 시위와 국민연합 주최로 가두투쟁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경대는 4·19주간에 정경대주변에서 4·19관련 전시회(사진 당시 신문, 대자보)를 가릴 예정이며, 한의대 '나라사랑학교', 국문과 '4·19학교'등도 개설된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이 기간중

15일부터 3일 동안을 각 과별 본 임의회의를 통해 4·19학명의 의의를 인식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6일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체육과학대학관 옆로게 측면잔디밭의 묘목에 경희의 결의가 담긴 문구를 세기기로 했으며 18일 오후1시에 이문옥 전 감사관 초청강

연회가 있다. 이날 강연회가 있은 후에는 대한체육과학대학, 강남대학과 공동으로 학교에서 신갈까지 기념마라톤도 가릴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9일에는 총학생회에서 기념식수가 있은후 집회를 갖기로 했다.

중간고사 22일부터 5일간
4·19행사 관계로 연기돼

양캠퍼스 교무처는 중간고사 기간을 오는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기존 학사일정상 지난9일부터 실시키로 되어있었던 이번 중간고사는 학생측에서 이수병동문 추모제 및 4·19학명제주간 등을 이유로 중간고사 일정의 연기를

를 학교측에 요구해 학처장 회의를 통해 연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총학'목요영화제'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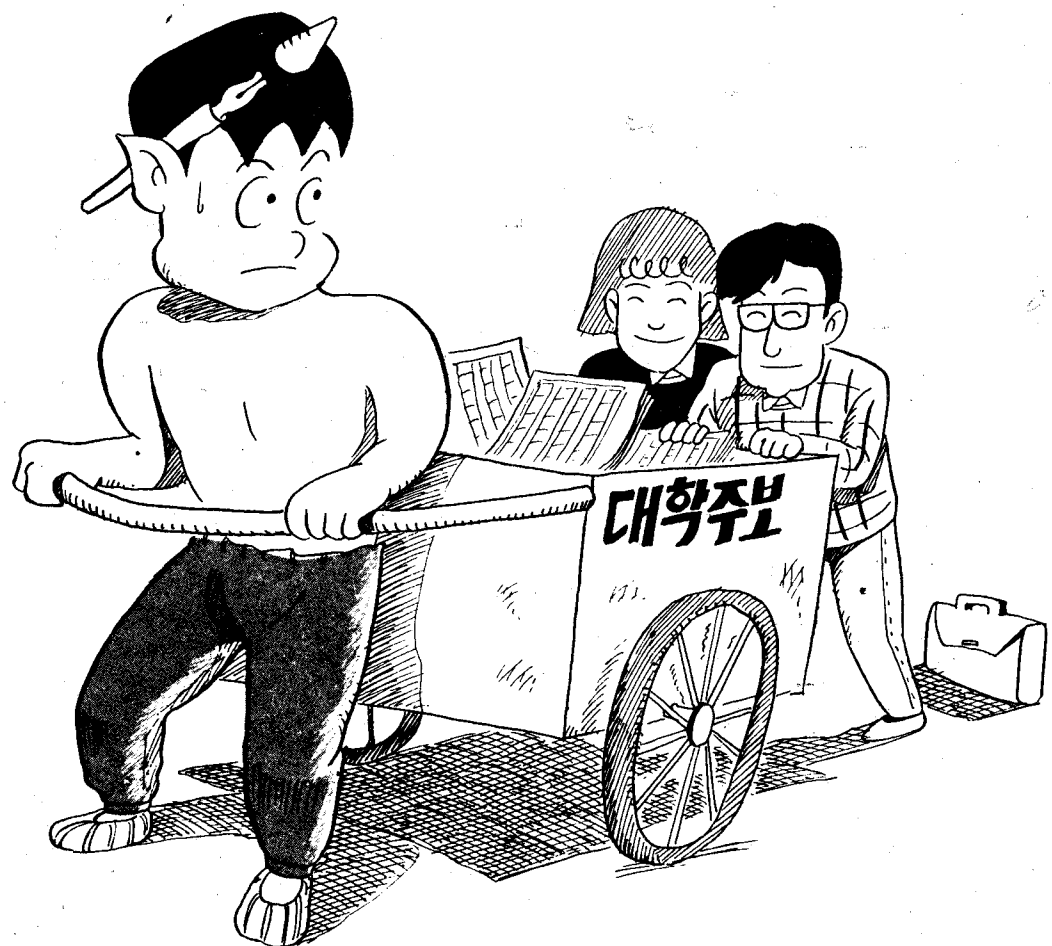
총학생회 문화국에서는 학내의 영상문화 관련 동아리들과 공동으로 매주목요일 '목요영화제'를 개최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화를 심어주기위해 열리는 이 영화제는 4월중에는 홍보기간으로 '철수와 만수', '단지' 그대여자는 이유만으로 등 상업영화를 주로 상영하며, 5월에는 전교조6월에는 반제, 반미 등의 월별주제를 선정 이와 관련된 소형 영화를 상영한다.

장소는 4월에 외국어대학관 한누리 소극장에서, 5월 이후부터는 3호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12시30분과 3시 두차례에 걸쳐 전체학우를 대상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화제가 정착되면 회원도 모집할 예정이며 영화상영후에는 간단한 토론시간도 가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학주보는
기자과 독자가 함께 만듭니다!

경희인의 理想과 思考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말해봅시다(200자 원고지 4-6매)

‘말해봅시다’는 교수·학생·직원등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의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 합니다.

□교수신문(200자 원고지 20-40매)

전임이상 교원이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발표하는 난입니다.

□독자신문(200자 원고지 20-40매)

학생의 연구성과나 교수·직원·학생이 학내외 문제에대한 심층분석 혹은 시사적인 주의주장을 펴는 난입니다.

□독자문예

경희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난으로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시:(매주제출) ·수필:(200자 원고지 10-15매)

·비평:(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4·5회 연재분

□사건·사고 제보및 정보 서비스

학내외적으로 한 번쯤 대학주보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료및 정보를 최대한 서비스해 드립니다.(자료의 성격상 반출이 금지되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고는 본사편집실로 직접 제출해 주시고, 직접 찾아오실 수 없을 경우 전화나 Fax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주·야간) 963-5849, 961-0093~5

수원캠퍼스(주간) (02)745-5702 (교환:2055-6,2860)

(0331)280-2055-6, 2860

Fax 서울캠퍼스 963-5849 수원캠퍼스(0331)280-2238